

## 넥스트 노멀 시대를 준비하며

총무운영위원 김 범 근 (한국식품연구원 가공공정연구단장)



존경하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기도 전에 연말 갑작스러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또다시 혼란이 예상되며, 이러한 대혼란이 이어질수록 건강과 환경에 대한 화두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을 위한 맞춤형 식사 솔루션, 환경 보호를 위한 탄소배출 저감화 등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뉴 노멀 시대를 지나 넥스트 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무엇’을 준비하는 것만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감염병 유행과 함께 찾아온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2,3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COVID-19 이후 국내학술대회로는 최초로 해외 기조 연사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발표를 하였을 뿐 아니라 52개의 후원사, 11개의 협찬사, 35개의 전시부스가 운영되는 등 매우 알차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학술분과위원회의 경우, 올해 개인맞춤영양분과위원회가 새롭게 발족되어 총 8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학회의 대표 학술지 중 하나인 Journal of Medicinal Food의 IF가 2.786으로 크게 상승하는 등 국내 식품분야 최고의 학술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회의 발전은 전우진 회장님, 이유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한 분의 운영위원님들, 이민정 국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사무국 직원분들과 학회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응원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만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학회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